봄날의 빛그을, 예향에 취하고…

제3회 광주비엔날레 71일간의 화려한 잔치-주제는 '人+間'

화사한 봄볕아래 지금 남도는 미술과 흙의 예술 축제중이다.
세계 46개국 245명의 작가가 참여한 광주비엔날레가 3번째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흙 좋기로 이름난 영암군 구림리에서는 흙축제가 한창이다.
그림의 향기, 흙의 정취를 마주하러 남도로 걸음해보자.
이 봄이 터질듯 풍성해지겠다.

광주=황수정기자(sjh@kdaily.com)

시내 곳곳에 나부끼는 포스터와 플래카드 물결을 따라 다다른 국제규모의 축제현장(북구 용봉동 중외공원 문화벨트)에는 연일 예향(藝香)으로 넘실댄다.

인간세상 자체에 대한 예술적 재해석

지난 3월29일 개막해 오는 6월7일까지 71일동안 계속되는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이래저래 의미가 빛난다. 21세기가 시작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비엔날레이자, 광주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서 예술적 발언을 하고 있어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인(人)+간(間)'. 사람과, 사람을 보듬어안은 공간을 일컫는 주제어에서 엿볼 수 있듯 비엔날레는 인간세상 자체에 대한 예술적 재해석을 시도했다. 제1회 '경계를 넘어'와 제2회 '지구의 여백'이 각각 잡았던 주제는 천(天)과 지(地)였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은 동양의 천지인 합일사상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인 셈이다. 3회 비엔날레의 최대 특징은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흔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전시의 핵심인 본전시에서 맨 첫 공간을 아시아쪽에 할애한 것은 그 좋은 예다.

미술축제 현장으로 걸음해 보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람해야할 지 주눅부터 드는 이들이 많을 것같다. 걱정할 필요없다. 관람 프로그램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전시는 크게 본전시와 특별전으로 나뉜다. 중

▲특별전 '인간과 성' 전시관 앞의 설치작품.

▼'국제의상미술전'에 나온 작품.

▼에이미 애들러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는가?'(미국)

◀윤석남의 구슬 작품 '꽃잎' ▼광주시각매체연구회 '오월의 문 · 윤상원의 눈'

▼준 구엔 하츠시바 '시클로-꿈과 현실 사이' (베트남)

외공원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덩치 큰 건물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가 비엔날레관. 본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이다. 1층 제1전시관에서는 전시의 포인트인 '아시아성'을 집약해 보여준다. 아시아 지역 작가 20명이 참여했다. 크고 작은 작품들 가운데는 유난히 오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몇몇 도드라진다. 베트남 작가 준 구엔 하츠시바가 내놓은 '시클로-꿈과 현실 사이'. 9m 높이에 매달린 카드와 시클로는 전후 베트남의 현실을 그대로 웅변한다. 은빛 주방기구들을 잔뜩 모아놓은 인도 작가 스보드 굽타의 '집에 가는 길'은 명상의 이미지를 재현해보이는가 하면, 일본 여성작가 가사하라 에이코의 '핑크'는 점액질이 묻은 여성의 질을 연속촬영해 보여준다. 1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나올 즈음 만나게 되는 중국 작가 구웬다의 작품은 두고두고 진한 잔영으로 기억된다. '연합국가-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장 10㎡을 차지하는 작품은,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모은 머리카락으로 이뤄졌다. 특별히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넉달동안 광주시내 20여개 미용실을 돌며 한국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따로 모으는 수고를 했다.

본전시와 5개의 특별전으로 나눠 관람

2전시관은 한국과 북미관으로 꾸며졌다. 창작지원금 논란 등으로 막판 사퇴파동 위기까지 갔던 진행상황을 생각하면, 전시벽을 장식한 한국작가들의 작품이 새삼 더 반갑다. 전시장을 들어서자마자 확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바닥에 길게 누운 윤석남의 구슬작품 '꽃잎'이다. 구슬로 형상화된 바다위에 꽃잎 모양의 보트가 자궁을 연상시키는 작품은 신산한 여성 삶의 역정을 드러내는 듯하다. 한쪽 벽면은 올 비엔날레 미술기자상을 받은 김호석의 작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근현대 민주화운동사'라는 제목 그대로 역사적 사건과 인물군상을 병치시킨 역사군중화다.

북미쪽 전시는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그려보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유럽과 아프리카로부터 20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내놓은 제3전시관에는 양쪽 지역의 중간 지점에 있는 중동 작가들도 가세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미 국제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이란의 여성작가 쉬린 네샤트는 비디오 작품 '환희'로 이번 행사에서도 대상을 거머쥐었다.

제4전시관은 중남미 미술 차지다. 13명의 작가가 참여한 공간은 꼭 안내문을 보지 않더라도 작품의 출처를 알 수 있을 만큼 특징이 잡힌다. '관모'와 '식민지의 발자취'라는 제목이 붙은 설치작품을 동시에 선보인 멕시코의 작가 미구엘 엔젤 리오스는 전시 초반에는 직접 입구에 서서 관객들을 맞는다.

본전시를 일람하고 나면 여유있는 마음으로 특별전을 챙겨볼 수가 있겠다. 모두 5개로 나눠어진 특별전 프로그램 가운데 '예술과 인권' 전은 비엔날레관에 본전시와 함께 선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 35명의 작가들이 권력-환경-문화 사이의 충돌과정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1박2일 가족나들이 코스로 무리없어

비엔날레관을 빠져나와 공원길을 10여분 산책한 후 다다른 교육홍보관에서는 특별전 '인간과 성'을 관람할 수 있다. 그 다음, 공원내 시립미술관 본관에 마련된 '북한미술의 어제와 오늘', '한 · 일 현대미술의 단면' 전을 둘러보면 좋겠다. '인간의 숲, 회화의 숲' 전은 중외공원 야외 산기슭 흙벽을 무대로 펼쳐진다. 100m 길이의 흙벽에는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행사기간 내내 조금씩 보태진다.

1, 2회때와 비교하면 설치미술 대신 회화가 많이 늘었다는 것도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이다. 꼼꼼히 다 둘러보려면 몇날씩 걸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족나들이로 주말 1박 관람코스로 잡아도 전혀 무리없다. 뉴스피플

▼중외공원 야외에서 열리는 특별전 '인간의 숲, 회화의 숲'.

(비엔날레)

● **관람시간**/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입장요금**/일반 1만2천원(30인 이상 단체 9천원), 학생 1만원(단체 6천원), 초등학생 8천원(단체 3천원)

● **셔틀버스**/공항~비엔날레장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2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 광주역~비엔날레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 5 · 18묘역~비엔날레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 (문의 062-523-1830)